

간호대학생의 부검 관련 태도와 법의학 교육의 효과

민 순¹ · 하윤주² · 문지영³

¹조선간호대학교, ²호남대학교 간호학과, ³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Effect of Forensic Education and Autopsy Attitude of Nursing Student

Soon Min¹, Yoon Ju Ha², Ji Young Moon³

¹Chosun Nursing College, Gwangju; ²Department of Nursing, Honam University, Gwangju; ³Department of Nursing, Chunnam Techno University, Gokseong, Korea

Purpose: This research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orensic education and autopsy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Methods:** Data on autopsy attitude were determined and collected by means of a self-reporting questionnaire including 14 questions on perception of a need for an autopsy and 11 questions on resistance to autopsy, the respondents being 846 nursing stud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an independent t-test with one-way ANOVA in an SPSS WIn 18.0 program. **Results:** The perception of a need for an autopsy was 4.06 on average and resistance to autopsy was 2.64 on average. The nursing students taking a forensic course showed a relatively higher level of perception of the need for an autopsy ($t = -5.63, p < .001$) than those not attending such a course ($t = 2.93, p < .001$). Perception of the need for an autopsy and resistance to autopsy show a negative correlation ($r = -.382, p = .003$). **Conclusion:** A forensic medicine course raises the level of perception of the need for an autopsy by nursing students and reduces the level of resistance to autopsy.

Key Words: Nursing students; Autopsy; Attitude; Forensic medicine

국문주요어: 간호대학생, 부검, 태도, 법의학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는 정지되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학문으로 미래지향적이다. 건강관리체계가 다양해지고 질 높은 건강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전문적인 간호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인해 간호사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영역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Kim & Kim, 2009). 따라서 간호사는 임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관리체제 내에서 돌봄, 교육, 상담, 옹호, 협력, 연구 및 관리영역에서 간호사 스스로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키워야한다(Choi, 2004).

간호사의 전문적 역량은 최근 법의학 분야에서도 요청되고 있으며(Jeong, 2007), 법률적으로 문제해결이 필요한 외상, 사망, 폭력, 재해, 범죄적 행위 등에서 임상 간호와 법의학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법적 권리를 추구하고 돕는 법의간호사가 새롭게 등장하였다(BouHaidar, Ruddy, & Ruddy, 2004).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이러한 법의간호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요구되어 사망사건, 산업재해, 아동학대, 노인 학대, 변사자 조사업무 및 손상의 원인규명 등에 참여하여 전문적 지식에 근거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Lynch, 2006).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에 법의

Corresponding author: Ji Young Moon

Department of Nursing, Chunnam Techno University, 113 Daehak-ro, Okgwa-myeon, Gokseong 561-911, Korea
Tel: +82-61-360-5338 Fax: +82-61-360-5330 E-mail: dallsh4001@hanmail.net

*본 연구는 2014년 조선간호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This study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osun Nursing College in 2014.

투고일: 2014년 5월 13일 심사완료일: 2014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 2014년 7월 3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간호학과가 개설되어 매년 법의간호사를 배출하고 있으나 그 연구와 인식이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Hong et al., 2013). 법의간호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학부 과정에서부터 법의간호학을 접하게 하여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간호지식의 확대 및 다양한 진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며(Hong et al., 2013), 이는 간호사의 전문적 역할 증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의 법의간호학에 관한 교육기반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식의 모체가 되는 학부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의간호학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법의간호학은 법의학의 기초로 변호사의 검시활동 중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규명하며,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을 경우 증거 수집 및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상담관리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전문분야이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을 밝히면서 재발예방을 돕고, 설명할 수 없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각종 유전적 소인을 안내하여 가족의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정책수립을 위한 정확한 사망통계를 얻는 데 필수적이므로(Koo & Lee, 2011) 미래 지향적인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궁극적으로 법의간호학은 인권을 옹호하고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여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Park & Jo, 2012), 이는 간호전문직의 목적과도 부합되므로 법의간호학적 지식이 간호대학생에게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법의간호학과 법의학에서 기본적인 지식이 되는 것이 부검이다. 부검은 병변과 손상을 찾아 그 원인과 정도를 파악하여 결과와의 인과관계 등을 밝히기 위해 사체를 조사하는 일이며, 죽음의 원인을 가장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Kang et al., 2007). 최근 부검이 요구되는 자살, 타살, 의문사 및 의료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부검을 행하는 것이 두벌 죽음으로 인식되어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국민정서가 강하다. 따라서 의료인이 유가족의 권리를 위하여 부검을 권유할 수 있는 최일선의 위치에 있지만, 부검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하여 부검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는 곧 개인의 권리행사나 보건 복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Lee, 2001).

간호사는 건강관리조직의 일원으로 임상, 학교, 지역사회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면서 유가족의 부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 자주 직면할 수 있는데 간호사는 이러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신뢰는 높으면서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기를 원한다(Cranley, Doran, Tourangeau, Kushniruk, & Nagle, 2009). 따라서 간호사는 대상자의 교육자, 옹호자, 상담자로서 부검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태도의 확

립이 요구되며 이는 학부과정에서부터 그 기초가 확립될 필요가 있고, 법의학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간호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금까지 법의간호학과 관련하여 법의간호사의 역할(Kim, Chae, Kwak, & Lee, 2010), 법의간호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Han & Hong, 2012; Kent-Wilkinson, 2011; Rask & Aberg, 2002; Scales, Mitchell, & Smith, 1993; Yoo, Cha, Cho, & Lee, 2012)가 시행되었으나 선행연구들은 간호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므로 간호지식의 기반을 세우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부검이 법의간호학과 법의학의 기초가 되므로 부검 관련 태도 및 교육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졸업 후 임상과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될 간호대학생의 부검 관련 태도를 파악하고 법의학 교육에 따른 부검 관련 태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부검 관련 태도의 확립과 법의간호학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있으며, 향후 법의간호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부검 관련 태도와 법의학 교육에 따른 부검 관련 태도를 확인하여 올바른 부검 관련 태도의 확립과 법의간호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간호대학교의 법의간호학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부검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부검 특성에 따른 부검 관련 태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법의학 교육에 따른 부검 관련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부검 관련 태도와 법의학 교육에 따른 부검 관련 태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전국 간호대학 10개교의 간호대학생으로 2012년 6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간호대학생 총 846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간호대학 10개교 중

에서 법의학 관련 수업이 개설된 학교는 2곳이었으며, 간호대학생 846명 중 98명이 법의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나이, 종교, 장래 근무분야가 포함된 총 5문항이다.

2) 부검 특성

부검 특성은 선호하는 장례, 부검수업의 필요성, 부검참관 실습의 필요성, 부검수업의 간호수행 시 도움 정도, 사망자 가족의 부검 승낙 영향자, 부검영상매체 경험 여부가 포함된 총 6문항이다.

3) 부검 관련 태도

부검 관련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Yang 등(2004)이 개발한 24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도구개발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도구 사용 및 수정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법의학 교수 1인과 간호대 교수 3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부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14문항과 부검에 대한 거부감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로(1= 전혀 그렇지 않다 5= 반드시 그렇다)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검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와 부검 거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부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Cronbach's $\alpha = .86$, 부검에 대한 거부감이 Cronbach's $\alpha = .77$ 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12년 6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자료 수집 시행 전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본 연구를 심의 의뢰하여 승인을 받았다(IRB No.: CHOSUN 2012-05-018). 자료 조사를 위해 편의 표집한 간호대학교의 기관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참여로 인한 유의성과 중단가능성, 자료수집방법 및 소요 시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요령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인 연구 참여를 유도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동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는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결과 분석을 위하여 SPSS WIN 18.0 program을 이

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부검 특성에 따른 부검 관련 태도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를 적용하여 차이를 비교하였다. 법의학 관련 교육에 따른 부검 관련 태도는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부검관련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846명으로 여성이 88.4%, 남성이 11.6%였다. 학년은 1학년 42.9%, 3학년 25.9%, 2학년 22.9%, 4학년 8.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24세가 52.4%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가 45.3%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29.6%, 천주교 13.8%, 불교 9.3% 순으로 나타났다. 장래 근무분야는 임상분야가 66.0%로 가장 많았으며,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16.5%, 연구직 또는 보건직 13.1%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부검 특성에서 선호하는 장례는 화장이 62.4%로 가장 많았고,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24.9%, 매장 12.6%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검수업의 필요성은 필요하다가 37.8%로 가장 많았고, 매우 필요하다 29.3%와 거의 필요하다 29.0%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부검참관 실습의 필요성은 보통이다가 75.1%로 가장 많았고, 부검수업이 간호사 직무수행 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가 54.8%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27.7%, 보통이다 15.4%,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1%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가족의 부검승낙 영향자는 고인의 직계가족이 80.5%로 가장 많았고, 담당 의사 14%, 담당 간호사 2.5%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검영상매체 경험 여부는 있다가 84.1%로 없다 15.6% 보다 많게 나타났다(Table 1).

2. 일반적 특성과 부검 특성에 따른 부검 관련 태도

대상자의 일반적 및 부검 특성에 따른 부검 관련 태도를 부검의 필요성 인식과 부검의 거부감 인식으로 검증하였다(Table 2).

부검의 필요성 인식에서는 학년($F=11.81, p<.001$), 나이($F=8.93, p<.001$), 장래근무분야($F=3.67, p=.012$), 부검 수업의 필요성($F=11.40, p<.001$), 부검 참관 실습의 필요성($F=10.56, p<.001$), 부검수업의 간호수행 시 도움($F=14.54, p<.001$), 사망자 가족의 부검 승낙 영향자($F=6.39, p<.001$) 및 부검영상매체 경험($t=7.51,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서는 3학년이 평균 4.09 ± 0.48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4학년 평균 4.06 ± 0.54 점, 1학년 평균 4.01 ± 0.54 점 순이었으며, 연령은 20-24세가 평균 4.11 ± 0.53 점으로 가장 높았고, 25세 이상이 평균 $4.11 \pm$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Related to Autopsy Perception of Subject (N = 846)

Character	Categories	Frequency (%)
Gender	Male	98 (11.6)
	Female	748 (88.4)
Grade	Nursing major 1st grade	363 (42.9)
	Nursing major 2nd grade	194 (22.9)
	Nursing major 3rd grade	219 (25.9)
	Nursing major 4th grade	70 (8.3)
Age (year)	16-19	285 (33.7)
	20-24	443 (52.4)
	Over 25	118 (13.9)
Religion	Buddhism	79 (9.3)
	Protestant church	250 (29.6)
	Roman catholic	117 (13.8)
	No religion	383 (45.3)
	Others	17 (2.0)
Future work	Clinical (in-hospital)	558 (66.0)
	Research sector or public health relation	111 (13.1)
	Undecided	140 (16.5)
Preferred funeral ritual	Others	36 (4.3)
	Burial	107 (12.6)
	Cremation	528 (62.4)
Necessity of autopsy study	Either	211 (24.9)
	Not required	8 (0.9)
	Almost not required	25 (3.0)
	Required	320 (37.8)
	Almost required	245 (29.0)
Autopsy observation or practice	Strongly required	248 (29.3)
	Not required	112 (13.2)
	Almost not required	20 (2.4)
	Required	635 (75.1)
	Almost required	28 (3.3)
A degree of assistive value of autopsy experience as curriculum of nursing major	Strongly required	51 (6.0)
	Not helpful	18 (2.1)
	Normal	130 (15.4)
	Somewhat helpful	464 (54.8)
With consent of family of the deceased, whom would they be affected by?	Strongly helpful	234 (27.7)
	Medical attendant	110 (14.0)
	Attending nurse	20 (2.5)
	Direct family member	663 (80.5)
Experience for movie (or any kind of show related) about autopsy	Others	23 (3.0)
	Yes	712 (84.1)
	No	131 (15.6)

0.52점, 16-19세 평균 3.95±0.55점 순으로 나타났다. 장래근무분야에서는 기타가 평균 4.21±0.78점으로 가장 높았고, 연구직 및 보건직 평균 4.11±0.59점, 임상근무 평균 4.07±0.52점 순이었다.

부검수업의 필요성에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평균 4.20±0.52점으로 가장 높았고, 거의 필요하다가 평균 4.07±0.50점, 거의 필요하지 않다가 평균 4.05±0.72점 순이었으며, 부검참관 실습의 필요성에서는 거의 필요하다가 평균 4.21±0.5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필

요하다가 평균 4.20±0.53점, 필요하다가 평균 4.06±0.50점 순이었다. 간호사 직무수행에 부검참관 실습의 도움여부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가 평균 4.21±0.56점으로 가장 높았고, 도움이 될 것이다가 평균 4.05±0.50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가 평균 3.88±0.56점 순이었고, 사망자 가족의 부검 승낙 영향자에서는 담당 의사가 평균 4.11±0.4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담당 간호사가 평균 4.06±0.58점, 직계가족이 평균 4.01±0.55점 순으로 나타났다. 부검영상매체 경험에서는 경험한 그룹의 평균이 4.05±0.54점으로 경험이 없는 그룹의 평균 3.92±0.54점 보다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검의 거부감 정도에서는 성별($t=10.20, p=.001$), 학년($F=5.07, p=.002$), 선호하는 장례($F=5.971, p=.003$), 부검수업 필요성($F=2.85, p=.023$), 부검참관 실습의 필요성($F=2.78, p=.029$) 및 부검수업의 간 호수행 시 도움($F=6.76,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는 여자가 평균 2.67±0.59점으로 남자 평균 2.45±0.68점 보다 거부감이 높았으며, 학년에는 2학년이 평균 2.74±0.65점으로 가장 높았고, 3학년이 평균 2.67±0.56점, 1학년 평균 2.60±0.62점 순이었다. 선호하는 장례에서는 매장 평균이 2.82±0.63점으로 가장 높았고, 화장 평균 2.61±0.60점 순이었으며, 부검수업의 필요성에서는 전혀 필요 없다가 평균 3.20±0.78점으로 가장 높았고, 거의 필요 하지 않다가 평균 2.74±0.64점, 거의 필요하다가 평균 2.63±0.56점 순이었다.

부검참관 실습의 필요성에서는 전혀 필요 없다가 평균 2.95±0.71점으로 가장 높았고, 거의 필요하지 않다가 평균 2.87±0.59점, 필요 하다 평균 2.68±0.59점 순이었으며, 부검수업의 간호수행 시 도움에 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평균 2.98±0.45점으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가 평균 2.7±0.52점, 도움이 된다가 평균 2.63±0.59점 순이었다.

3. 법의학 교육 경험에 따른 부검 관련 태도

부검이 필요한 항목에서 법의학 관련 수업을 받은 간호대학생과 받지 않은 간호대학생의 부검 관련 태도는 Table 3과 같다. 부검의 필요성 인식은 법의학 관련 교육을 받은 간호대학생의 전체 평균이 4.43±0.38점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대학생의 전체 평균 4.03±0.54점 보다 높았고($p<.05$), 14개 항목 중 11개 항목에서 법의학 관련 교육에 따른 인식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범죄나 타살에 의심이 간다면 수사 절차상 부검은 필요하다', '수술 중이거나 마취가 깨어나기 전에 사망했을 경우 진단과 치료가 올바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 '집 외에 다른 장소에서 사망하였고 사망자가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필요하다'의 항목에서 부검의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었다.

Table 2. Attitudes and Reasons of Opposition of Autopsy in Relation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 846)

Character	Categories	Attitudes of autopsy					
		Cognition			Reluctance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Gender	Male	4.09 ± 0.55	0.25	.614	2.45 ± 0.68	10.20	.001
	Female	4.06 ± 0.54			2.67 ± 0.59		
Grade	1st grade	4.01 ± 0.54	11.81	<.001	2.60 ± 0.62	5.07	.002
	2nd grade	4.01 ± 0.47			2.74 ± 0.65		
	3rd grade	4.09 ± 0.48			2.67 ± 0.56		
	4th grade	4.06 ± 0.54			2.42 ± 0.45		
Age (year)	16-19	3.95 ± 0.55	8.93	<.001	2.63 ± 0.63	0.21	.812
	20-24	4.11 ± 0.53			2.64 ± 0.58		
	Over 25	4.11 ± 0.52			2.60 ± 0.66		
Religion	Buddhism	4.03 ± 0.49	0.55	.697	2.56 ± 0.55	1.24	.293
	Protestant church	4.04 ± 0.59			2.64 ± 0.59		
	Roman catholic	4.13 ± 0.54			2.72 ± 0.60		
	No religion	4.06 ± 0.53			2.62 ± 0.63		
	Others	4.05 ± 0.70			2.81 ± 0.61		
Future work	Clinical (in-hospital)	4.07 ± 0.52	3.67	.012	2.62 ± 0.61	0.62	.602
	public health relation	4.11 ± 0.59			2.62 ± 0.58		
	Undecided	3.94 ± 0.57			2.70 ± 0.60		
	Others	4.21 ± 0.78			2.62 ± 0.70		
Preferred funeral ritual	Burial	4.07 ± 0.59	0.57	.944	2.82 ± 0.63	5.97	.003
	Cremation	4.05 ± 0.52			2.61 ± 0.60		
	Either	4.06 ± 0.57			2.60 ± 0.60		
Necessity of autopsy study	Not required	3.64 ± 0.83	11.40	<.001	3.20 ± 0.78	2.85	.023
	Almost not required	4.05 ± 0.72			2.74 ± 0.64		
	Required	3.91 ± 0.54			2.70 ± 0.59		
	Almost required	4.07 ± 0.50			2.63 ± 0.56		
	Strongly required	4.20 ± 0.52			2.56 ± 0.66		
Need of autopsy in curriculum of nursing major	Not required	3.85 ± 0.75	10.56	<.001	2.95 ± 0.71	2.73	.029
	Almost not required	3.92 ± 0.55			2.87 ± 0.59		
Autopsy observation or practice	Required	4.06 ± 0.50			2.68 ± 0.59		
	Almost required	4.21 ± 0.52			2.62 ± 0.57		
	Strongly required	4.20 ± 0.53			2.57 ± 0.65		
A degree of assistive value of autopsy experience as curriculum of nursing major	Not helpful	3.88 ± 0.56	14.54	<.001	2.98 ± 0.45	6.76	<.001
	Normal	3.84 ± 0.58			2.78 ± 0.52		
	Somewhat helpful	4.05 ± 0.50			2.63 ± 0.59		
	Strongly helpful	4.21 ± 0.56			2.53 ± 0.67		
Whom would they be affected by?	Medical attendant	4.11 ± 0.49	6.39	<.001	2.64 ± 0.61	1.67	.154
	Attending nurse	4.06 ± 0.58			2.40 ± 0.62		
	family members	4.01 ± 0.55			2.66 ± 0.61		
Experience for movie about autopsy	Yes	4.05 ± 0.54	7.51	<.001	2.64 ± 0.61	1.29	.271
	No	3.92 ± 0.54			2.45 ± 0.41		

부검의 거부감에서는 법의학 관련 교육을 받은 간호대학생의 전체 평균이 2.42 ± 0.45점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대학생의 전체 평균 2.65 ± 0.62점 보다 낮았으며($p < .05$), 11개 항목 중 8개에서 법의학 관련 교육에 따른 거부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검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인간의 존엄성이 모독되는 것 같아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한다', '의학교육의 측면으로 실험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 및 '나의 몸이 공개된다'의 항목에서 부검의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간호전문직은 사회 변화 속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부검 관련 태도를 파악하고, 법의학 관련 교육에 따른 부검 관련 태도의 차이를 확인하여 올바른 부검 관련 태도의 확립과 간호학과 법의간호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선행연구를 바탕으

Table 3. Attitude toward Autopsy according to the Forensic Pathology Classes Experience

Attitudes of autopsy	Forensic pathology courses taken			
	No (M±SD) n = 748	Yes (M±SD) n = 98	t	p
Cognition				
1. Suspicion of a crime	4.69±0.31	4.86±0.34	-2.521	.012
2. Deaths from employment, accident, industrial disease or industrial poisoning	4.35±0.74	4.53±0.76	-1.711	.092
3. Deaths occurring during an operation or under anesthetic	4.43±0.70	4.76±0.43	-5.547	<.001
4. Deaths in prison or police custody	4.04±0.94	4.50±0.62	-3.706	<.001
5. Uncertain cause of death	4.28±0.87	4.38±0.61	-0.936	.349
6. Deaths occurring not in a house, and the deceased's residence is unknown	4.16±0.98	4.70±0.62	-4.248	<.001
7. Deaths from accidents caused by any vehicle, airplane or train	3.46±1.11	3.91±0.98	-3.442	.001
8. For compensa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nd insurance purpose	3.91±0.97	4.61±0.64	-5.545	<.001
9. To prevent family diseases when a health-looking person dies suddenly and an unidentified disease is discovered	3.94±1.00	4.53±0.62	-4.459	<.001
10. For the medical education	3.89±0.98	4.38±0.67	-3.799	<.001
11. Quality control of care/treatment	4.02±0.90	4.41±0.62	-4.571	<.001
12. Deceased was not seen by the certifying medical practitioner either after death or within 14 days before death	3.58±1.01	4.13±0.79	-4.095	<.001
13. Deaths occurring during the military service	4.04±0.98	4.57±0.65	-4.180	<.001
14. Autopsy should not be allowed in any case	3.62±1.05	3.73±0.99	-0.820	.415
Total	4.03±0.54	4.43±0.38	-5.630	<.001
Reluctance				
1. Bad influence on the body in the spiritual world	2.10±1.05	1.76±0.81	2.370	.018
2. Incompetency of the doctor who performs an autopsy	2.90±1.82	2.56±0.91	2.713	.008
3. Shame to expose the bare body	2.84±1.22	2.73±1.19	0.688	.494
4. Discomfort with cutting the organs	2.69±1.20	2.33±1.00	2.224	.026
5. Influence on the funeral schedule and process	2.76±1.07	2.45±1.13	2.091	.040
6. Unclean autopsy facilities	2.52±1.04	2.00±0.80	3.813	<.001
7. Investigation of the cause of death of the deceased is useless	1.99±1.01	1.32±0.62	5.802	<.001
8. Less value of autopsies because of the advanced medical equipments	2.56±0.96	1.98±0.97	4.496	<.001
9. Reluctant to be an experimental body	3.21±1.20	3.02±1.14	1.227	.224
10. Fear of disclosing malpractice	2.58±1.14	2.57±1.14	0.076	.939
11. Violate the reverence for the dead	3.03±1.13	3.83±1.06	-5.631	<.001
Total	2.65±0.62	2.42±0.45	2.929	<.001

로 논의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의 부검 관련 태도를 문항별로 살펴본 결과 법의학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부검 필요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나 타살에 의심이 간다면 수사 절차상 부검은 필요하다', '수술 중이거나 마취가 깨어나기 전에 사망했을 경우 진단과 치료가 올바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 '집 외에 다른 장소에서 사망하였고 사망자가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필요하다'의 항목에서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었다. 간호대학생의 부검 관련 태도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그 결과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법의학 관련 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는 집단의 부검 인식도를 조사한 Yang 등(2004)의 연구와 의학교육에서 부검의 중요성을 조사한 Ravi, Avishek와 Behera (201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직접적인 법의학 관련 교육이 부검의 중요성과 인지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법의학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

의 부검에 대한 필요성 점수이다. 비록 법의학 관련 교육을 받은 집단과의 차이는 있었지만 법의학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서도 총 5점에서 평균 4.03점으로 부검에 대한 필요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또한 근거를 중요시하는 간호학 교육과 실습경험 및 부검 관련 영상매체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부검 관련 영화나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 학생이 84.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부검에 대한 인식도가 부검영상매체를 경험한 그룹이 경험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부검을 다루는 영상매체를 통한 정보습득과 관찰한 내용들이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영상매체는 흥미 유발을 위한 허구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그릇된 인식을 만들어 법의학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Hammer, Moynihan, & Pagliaro, 2006). 따라서 법의학간호학 교육이 간호학과 교육과정에 필요하며 간호대학생이 법의학간호학적 접근을 통해 올바른 부검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면 미래의 임상현장에서 환자와 보

호자에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부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법의학 관련 교육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이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부검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았고, 거부감은 낮게 나타났다는데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부검 인식도를 조사한 Yang 등 (2004)의 연구와 스웨덴의 의과대학생을 조사한 Sanner (199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법의학 관련 교육을 통한 지식의 확장으로 부검에 대한 올바른 필요성을 정립하는 긍정적 변화가 부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거부감을 낮추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간호대학생의 부검 관련 태도에서 낮은 거부감을 나타낸 항목은 '사후 부활시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죽으면 끝인 것을 사후에 사인 규명이나 질병 연구는 별 의미 없다'로 조사되었다. 이는 부검에 대한 거부감에서 종교적 이유는 낮게 반영된 것으로 간호학이라는 과학적 지식체를 접한 결과로 여겨진다. 부검에 대한 높은 거부감을 나타낸 항목에는 '부검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인간의 존엄성이 모독되는 것 같아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한다', '의학교육의 측면으로 실험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 및 '나의 몸이 공개된다'의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윤리적 사고방식과 우리나라에서 전해지는 전통적인 유교적 관습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거부감에 대한 인식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법의간호학 교육과정이 더욱 활성화 되어서 올바른 부검 태도가 확고히 다져지는 시간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거부감은 전문 의료인으로서 스스로 모순이 되는 것이고, 이런 모순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환자에게 부검을 권유할 수 없고 그 가치를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을 것이기에 교육을 통해서 부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간호사가 부검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의 2.4%로 나타났지만, 부검수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의 65.6%로 나타났다. Dzibon, Robert와 Benbow (2008)는 간호사가 예상외로 부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간호사들에게 부검의 유용성 및 이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간호사는 병원 내 다른 직종에 비해 보호자 및 환자와 좋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유가족에게 부검에 대한 설명 및 동의를 얻는 데 있어서 간호사가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즉 간호사들은 임상, 학교, 지역사회 등 다방면에서 유가족의 부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부검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태도 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에게 법의간호학 교육을 한다면 유가족의 부검 결정이라는 간호상황에서 더욱 신뢰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부검은 법의학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되었지만 이를 간호대학생들에게 적용하여 부검 관련 태도를 연구하는 것은 법의학에 기초한 법의간호학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법의간호의 중요성이 널리 인정되어 1980년대 후반부터는 학위과정 중 선택 과정이나 자격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Kent-Wilkinson, 2011). 우리나라에서도 법의간호 교육이 학부교육과정, 대학원, 보수교육에서 시행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Han & Hong, 2012; Hong et al., 2013; Yoo et al., 2012), 국내 최초로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에서 법의간호학과가 개설되어 법의간호사를 배출하고 있으나 전문적 역량을 펼치기에는 임상적 기반이 미약한 실정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13개 분야에서도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법의학 관련 교육 경험에 따른 부검 관련 태도 결과를 학년별로 조사하고 싶었으나 모두 동일한 학년이 법의학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그 결과를 비교할 수 없었으며, 조사한 10개 간호대학교 중에서 2개교 만이 법의학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고, 이 또한 교육과정의 변동 시에 임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의간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직 간호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 법의간호학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간호대학생의 부검 관련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여기에 법의간호학 교육 프로그램의 견고한 성장을 위해 간호교육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법의간호학을 교과과정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미비하므로 법의간호학의 기초가 되는 부검 관련 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법의간호학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법의간호학 교육의 기초가 되는 부검 관련 태도와 교육 경험에 따른 부검 관련 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법의학 관련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부검 관련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바 간호사의 전문적인 역할확대를 위해서는 법의간호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부교육과정부터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향후에는 간호대학생에게 체계적인 법의간호학 교육 기회를 제공한 후 그 효과를 다방면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해 부검의 필요성과 법의학 교육에 따른 부검 관련 태도를 살펴본 후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부검 관련 태도의 확립과 법의간호학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부검의 필요성 인식은 학년에서는 3학년, 연령은 20-24세, 장래근무분야에서는 기타, 부검수업의 필요성에서는 매우 필요하다. 부검참관 실습의 필요성에서는 거의 필요하다. 간호사 직무수행에 부검참관 실습의 도움여부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망자 가족의 부검 승낙 영향자에서는 담당 의사, 부검영상매체 경험에서는 경험한 그룹이 가장 높았다. 부검의 거부감 정도는 성별에서는 여자, 학년에서는 2학년, 선호하는 장례에서는 매장, 부검수업의 필요성에서는 전혀 필요 없다. 부검참관 실습의 필요성에서는 전혀 필요 없다. 부검수업의 간호수행 시 도움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에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법의학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이 교육 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보다 부검 필요성의 인식도가 높았으며, 거부감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사의 전문적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학부교육과정에 법의간호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대학생의 법의간호에 대한 인식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간호사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간호교육자의 전반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 BouHaidar, R., Rutty, J. E., & Rutty, G. N. (2004). Forensic web watch-forensic nursing. *Journal of Clinical Forensic Medicine*, 11(4), 220-222.
- Choi, E. S. (2004). Present situation of korean nursing.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0(3), 190-199.
- Cranley, L., Doran, D. M., Tourangeau, A. E., Kushniruk, A., & Nagle, L. (2009). Nurses' uncertainty in decision-making: a literature review. *Worldviews on Evidence-Based Nursing*, 6(1), 3-15.
- Dzibon, M. D., Robert, I. S., & Benbow, E. W. (2000). Attitudes of nursing staff to the autops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2(4), 969-974.
- Jeong, O. S. (2007). A effect that the expert opinion on the forensic medicine is influenced in the connection with court-oriented trials.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19(2), 283-304.
- Hammer, R. M., Moynihan, B., & Pagliaro, E. M. (2006). *Forensic nursing: A handbook for practice* (1st ed). London: Jones and Barlett Publishers.
- Han, H. S., & Hong, H. S. (2012). The awareness and performance of the forensic nursing role in emergency department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14(4), 291-299.
- Hong, H. S., Kim, D. J., Kim, H. J., Seong, H. J., Yoon, W. J., & Na, Y. K. (2013).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the forensic nurse's role and needs of forensic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15(3), 115-121.
- Kang, D. Y., Kang, H. U., Kwak, J. S., Kim, J. H., Park, U. U., Park, J. C., et al. (2007). a textbook of legal medicine (1st ed). Seoul: Jungmunkag.
- Kent-Wilkinson, A. E. (2011). Forensic nursing educational development: an integrated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3), 236-246.
- Kim, J. E., Chae, J. M., Kwak, J. S., & Lee, S. H. (2010). The role of forensic nurse in the child sexual abuse response center.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 18(1), 135-137.
- Kim, K. S., & Kim, M. W. (2009). Present and political tasks of advanced practice nurse in Korea.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6(1), 39-53.
- Koo, H. J., & Lee, T. Y. (2011). The primary factors of uncertain cause of death between countries and the statistical influence of postmortem investigation system.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2(1), 173-199.
- Lee, Y. S. (2001). Korean and autopsy. *Healthcare Review*, 4, 227-239.
- Lynch, V. (2006). *Forensic nursing* (1st ed). St. Louis: Elsevier.
- Park, D. G., & Jo, S. J. (2012). Improvement of the current inquest system in terms of human rights.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8(4), 87-102.
- Rask, M., & Aberg, J. (2002). Swedish forensic nursing care: Nurses' professional contributions and educational needs.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9(5), 531-539.
- Ravi, R., Avishek, K., & Behera, C. (2013). Attitudes of medical students towards medico-legal/clinical autopsy. *Journal of Indian Academy of Forensic Medicine*, 35(4), 358-361.
- Sanner, M. A. (1995). Medical students' attitudes toward autopsy. How does experience with autopsies influence opinion? *Archives of Pathology & Laboratory Medicine*, 119(9), 851-858.
- Scales, C. J., Mitchell, J. L., & Smith, R. D. (1993). Survey report on forensic nursing.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31(11), 39-44.
- Yang, Y. Y., Park, H. K., Park, C. Y., Lee, W. K., Lee, S. H., Kwak, J. S., et al. (2004). Medical students' attitudes toward autopsy and the effect of their attitudes following a forensic pathology course.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38(3), 165-173.
- Yoo, Y. S., Cha, K. S., Cho, O. H., & Lee, S. K. (2012). Emergency department nurses recognition of and educational needs for forensics nursing education.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4(5), 499-508.